어디를 가도 쾌적한 휴식처가 있고, 볼거리·먹을거리가
다양해 쇼핑이 즐겁고,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춘천 지하도상가를 소개합니다.

음식점&카페

은하수커피	광장 다06
하비커피	광장 다08
맘스터치	광장 다11
봉구스밥버거	광장 다15
저스트피자	광장 다16
원리터	광장 다18
피카소카페	다55
추억의 옛다방	가58-59
돈카돈까	다43-48
뚝배기마을	다49-50
윤가네바지락칼국수	다53-54
유우동	다77-78
쥐눈이콩나물밥	다82-83

사진관

이미지클럽	다35
S포토	다37
뽀샤시	다57
by스튜디오	다61
이미지만들기	다62
예담포토	다65
스타키드	다67

안경&휴대폰 액세서리

남대문안경	다12
안경마트	다19-20
렌즈미	라28
썬모바일	다04-05
소미 휴대폰	다09-10
스마트폰다이쏘	가18
제로모바일	나09-10
폰껍데기	나15/라35

옷 수선점이 있어요!

대일명품수선	다58
불개미수선	다60
명동옷수선	마41
춘천수선	마50

심심풀이 운세

생생타로&점	마11
박사타로	가14
신비한타로점	가19
사주타로	가43
원조타로 서비스	나41
흥겨운철학	다38

공방&작업실

앵두호두	가09
바늘꽃, 수 놓다	가12
황실유럽자수	나29-30
유니네뜨개인형	다42
에스쁘아르	다70
나무향기	마13
소소한이야기	마34

전시&공연

갤러리상상언더	마-56
광장 상상공원	
소공연장	가-81

- 가~나열 → 중앙로
- 다열 → 도청로
- 라~마열 → 남부로

국토교통부 | 춘천시 | 조운소양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운동네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2023년 8월
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 제08호

좋은소식



주얼리, 화장품, 스카프,
캐주얼 웨어부터 슈트까지
패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춘천 지하도상가는
블링블링한 패션의 거리!



춘천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학교, 은행, 극장, 상점, 시장이 밀집한 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교통이 집중된 춘천의 중심 그 지하에 도청로, 중앙로, 남부로 세 방향으로 길게 뻗은 보도를 사이에 둔 상가가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지하도상가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문화예술이 활기차게 펼쳐지는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여름은 춘천 지하도상가!'라 할 만하니, 시민의 휴식 공간에서 젊음을, 낭만을, 문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림_화고고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3년 8월
제08호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3년 8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유명화
일러스트 하고고
사진 이보영(스튜디오 록)
디자인 쿠담
제작 여름 출판사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Contents

01 조운 게시판

02 사는 사람 조운 사람
불개미옷수선 이경한 & 유정애
진미식당 + 중앙표구사 이경자 & 김성우
하비커피 정주신 & 서호란

08 同同街 마주하기
조운동네 문화거점 시설로
춘천 문화도시를 보고 느끼고 읽어보자



12 우리도 멋지게
춘천도 성수동 '대림창고'처럼

14 우리는 즐겁게
상상 한 여름
틈새콘서트

16 좋은 소식

17 조운人 한마디



조운위크 여름

한여름 밤의 음악회

8월 25일~26일, 오후 5시~9시

춘천시청광장

공연, 체험, 마켓, 이벤트, 칵테일 쇼 등

조운동네 부부열전

조성미
시민기자

만남부터 오늘까지 한마음 부부의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불개미옷수선 이경한 & 유정애
중앙로1가 91 지하도상가, 도청로 다-60
033-254-8482





춘천 지하도상가 다열에 있는 불개미옷수선집. 그 이름만으로도 성실과 근면으로 무장한 이들의 가게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열네 살 때부터 양복 기술을 배운 남자와 일찍이 양복점에서 일하던 부인이 만나서 수선집을 운영하니 그 솜씨 또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 양복 기술이 좋던 남자는 미국이 수선비가 비싸니 미국 가서 돈을 벌어오자는 친구와 손잡고 한국을 떠났다. 덜컥 가보니 수선은 양복 만드는 것과 조금 달랐지만, 뉴욕 맨해튼에서 4년을 일하고 돌아왔다. 닭갈비 식당을 하던 동생이 식당 운영을 권유했지만, 평생 옷을 만져서인지 내키지 않았다. 다른 일을 몇 년 기웃거리다가 아는 후배로부터 지하도상가 수선집을 이어받아 시작한 것이 올해로 18년째다. 수선은 고객의 입맛에 맞게 기존의 옷을 고치는 일이라 까다로운 점이 많다. 초기에는 막무가내인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건강도 나빠졌다. 그러다 차차 고객과 소통이 잘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노련미가 점점 더해지면서 자동으로 단골손님이 늘어 꼼꼼하고 피곤한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수선집이 되었다.

오래전 요선동에 나란히 있던 두 양복점의 남녀가 20대에 만나 40년을 넘게 살아왔다. 남편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부인은 한국에 남아 두 아이를 혼자 힘들게 길렀다. 부인은 남편이 지쳤을 땐 그늘이 되어주고 힘들어할 땐 기댈 수 있는 나무처럼 긴 시간 옆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있었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조각이다. 가게에 걸린 조각도 남편의 작품이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것으로 만드는 것’을 수선의 모토로 생각하는 남편과 아침마다 도시락을 준비해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의 가게는 오늘도 수선 중이다.



맛있는 1층과 멋있는 2층 부부의

“세심한 남자와 야무진 여자가 잘 만났습니다.”

진미식당 + 중앙표구사 이경자 & 김성우
서부대성로44번길 22-1
1층 진미식당 033-244-4144
2층 중앙표구사 033-256-1128

유명 패션업체에서 일하던 멋스럽고 똑부러진 여자와 인사동 표구사의 솜씨 좋고 단정한 남자는 소개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 부부, 강산이 세 번도 넘게 변했을 시간을 함께 보냈고, 지금도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함께 있다. 심지어 일도 같은 공간 1, 2층에서 하니 바늘과 실이 따로 없다.

남편은 평생 표구 일을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사동에서 일을 배워 오랫동안 한길을 걸었다. 유명 작가의 작품과 청와대에 들어가는 작품까지 표구하는 등 꽤 괜찮은 경력을 쌓고 춘천에 내려와 요선동에서 표구사를 운영했다. 예술작품을 다루는 일이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인지라 일할 때는 조금 까칠하다 싶은 성격이 나온다. 일 때문에 성격이 바뀌었는지, 그런 성격 탓에 표구 일과 잘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아내는 결혼 후 흔히 그렇듯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살림을 도맡아 했다. 표구사 매출이 그다지 좋지 않을 때 근처에 식당을 열었다. 주위 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식당은 꽤 잘되었다. 남편의 건강과 사업이 함께 악화되었을 때는 아내가 그 몫을 대신했다. 이제 이 부부, 어엿한 건물주인이 되어 따로 또 같이 일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주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1층 식당에서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그 2층에서는 평생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해온 남편이 표구사를 운영한다. 바쁜 시간에는 2층 사장님이 1층 도우미가 되기도 한다. 서로 더 잘되도록 도와주고 힘써주어 내조·외조가 따로 없는 부부다.





문학을 사랑하는 친구 같은 부부의

“조급하면 커피가 안 되더라고요, 인생도 그래요.”

하비커피 정주신 & 서호란
중앙로 50-2 지하도상가, 광장 다-08호
033-252-5767



지하도상가를 지나노라면 여느 카페와 다른 특별한 향기로 발길이 살며시 머무는 곳이 있다.

드립커피를 느리게, 느리게 내리고 있는 백발 주인장의 모습에서, 똑똑 떨어지는 커피 방울에 왠지 모를 특별한 인생의 향이 더해졌을 것만 같은 카페다.

하비커피는 사랑하는 손녀가 아기 때 할아버지를 ‘하비, 하비’ 하며 부르고 따라서 그 예쁜 모습이 좋아 카페 이름으로 정했다고 한다. 글을 쓰는 아내와 시를 사랑하는 남편이 편지로 만나 평생을 함께했고 지금은 같이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를 내리는 틈틈이 시를 쓰는 남편과 그의 작품을 가장 사랑하는 1순위 애독자인 부인은 창창한 20대에 만나 사랑했고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다.

부유하게 자란 철원의 문학청년 남편은 젊은 시절 의욕적으로 출판일에 뛰어들었고 지역 환경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크게 소득이 없었다. 집안 사정도 급작스럽게 나빠졌고, 춘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여유로운 낭만 문학도였다. 아내 역시 글을 쓰고 기고하는 일을 젊은 시절부터 하여 문학에 대해 서로 잘 공감했다.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커피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바리스타 과정을 밟으며 커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숯으로 로스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숯으로 로스팅하며 맡는 구수한 커피 향에는 행복의 향이 더해진다.

이른 아침 부부는 함께 산책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풀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한다. 간단히 식사하고 카페에 와서 저녁까지 커피를 팔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야기도 나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행복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부부. 요즘 가장 행복한 것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일이다. 거기에 손님이 와서 커피 장사가 잘되면 정말 더 행복할 것이다.



허준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

조운동네 문화거점 시설로 춘천 문화도시를 보고 느끼고 읽어보자

도시재생은 도시 개발처럼 삶의 터전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껏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켜갈 만한 가치를 보존해나감을 이상으로 추구한다. 재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려낸다는 뜻으로 읽히며, 쓸모없던 것을 쓸모 있게 만들어 본다는 의미를 내포해 새로운 가치를 입혀 보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며 도시 개발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부의 편재와 대물림 현상이 심화했다.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에서 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성장구조로 변화하며 도시 간에는 성장 지역과 낙후 지역이 생겨났다. 춘천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과 대부분 임야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이며 개발에 제한을 받았다.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 시설은 애당초 들어설 수 없었고, 다만 신산업 소재의 연구소나 공장이 몇 개 세워졌을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그나마 도시에 활력을 주는 도시변화의 마중물과 같았다.

춘천시에서는 우두동 '돌봄으로 활력 찾는 50호 마을'이라는 예비사업을 포함하여 5곳에서 재생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근화·소양 뉴딜사업인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를 시작으로 약사·명동 뉴딜사업인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만들기', 교동·소양 뉴딜사업인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 조운·소양 뉴딜사업인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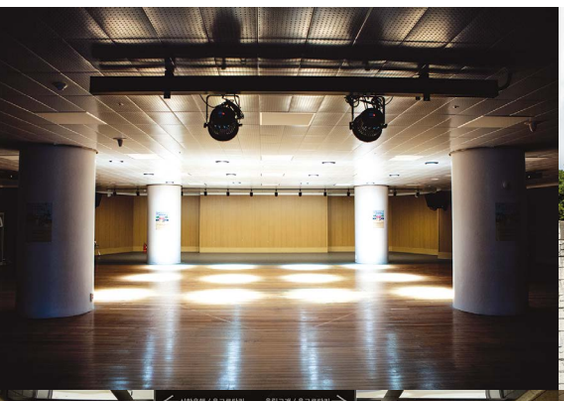
춘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단어(key word)는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culture)'이며, 이를 중심으로 생활·경제·역사·청년 재생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사람·역사·문화·장소를 재생의 핵심 가치로 활용하되 그 지역(장소)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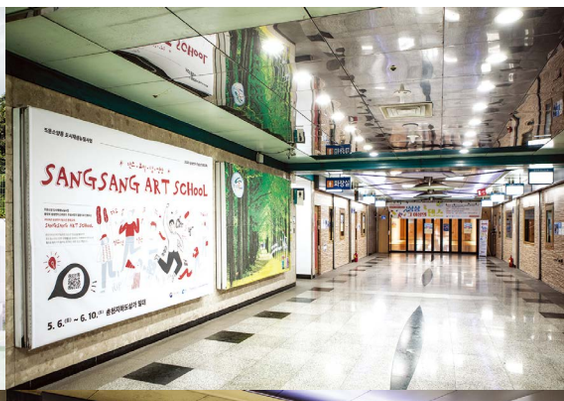
조운·소양 뉴딜사업인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를 이루려는 구체적 사업으로 1)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 시청광장 문화활성화 사업 3)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4) 지하광장 상상공원 조성사업 5) 중앙로 상상문화거리 조성사업 6) 스마트교통시스템 운영사업 7) 조운 웰컴센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조운동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문화가 숨 쉬는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상상'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발현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머릿속에 갈무리되어 남는다. 네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 가운데 조운동네는 현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할 탄탄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시 문화정책에도 들어맞게 사업을 진행할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마임축제 개설 무대를 조운동네에 마련하였는데, 이는 '조운동네'에서 꾸준하게 추진했던 노력의 결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대표로 하는 재생사업의 특성에도 부합한다.
'조운동네'에서 진행하는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 가운데 시청광장 문화 활성화 사업은 상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운동네'에 주민과 관광객이 모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마임, 연극, 인형극 등 춘천의 3대 고유문화 콘텐츠와 접목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재생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리마켓을 요선동, 지하도상가, 새명동 중심에 있는 시청광장을 활용함으로써 춘천 원도심 브랜딩 제고와 홍보를 겸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내고 있다.

'조운 웰컴센터 조성사업'도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웰컴센터는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이면서 재생사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주민협의체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거나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공간이다. 지하 1층에 자리한 마을극장에서는 영화 관련 워크숍이나 영화 교실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면 누구나 대관 신청을 하면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추진 중인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주민(상인)협의체 결성이 이루어지면 이들 간의 커뮤니티는 물론 다양한 사업 수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로 지하도상가에 '상상언더그라운드'를 조성한 일은 문화예술로 지하도상가의 변화를 꾀하고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조운동네'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다. 슬럼화한 지하도상가를 개조하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계절 쾌적한 도심 속 지하정원으로 변신한 지하도 광장인 '상상공원'과 함께 '조운동네'의 대표적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상상공원에서는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상언더그라운드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은 물론 예술작품을 내내 감상할 수 있어 춘천을 대표하는 전천후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내년이면 종료하는 조운동네 재생사업은 여러 문화거점 시설 중 상상어울림센터 조성만 남겨놓고 있다.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조운동네 재생사업의 최고 알갱이이자 고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주요 시설을 비롯해 부대시설을 운영할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인적 자원과 시설이 선순환적 구조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에 다가설 수 있으리라.











멋지게
도시를
재생한 이야기
⑧

춘천도 성수동 '대림창고'처럼

이예은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지난 6월 초 성동구 일대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성수동은 도시재생의 본질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혀요. 원래 성수동은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준공업 지역이었죠. 섬유 관련 업체부터 화학, 자동차 기계 등 제조 공장들이 즐비했어요. 1980년대 제조업의 쇠퇴에 이어 2000년 이후 수제화 산업 또한 기울면서 성수동에는 낡은 건축물과 폐공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공간에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예술가들과 스타트업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버려진 건물들의 낡은 외관과 분위기를 살려 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시작은 '대림창고'예요. 1970년대 정미소, 1990년대 공장 부자재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 아티스트에게는 영감이 되었어요. 창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11년 카페로 변신했는데, 그 후 패션쇼·론칭 행사·전시회·공연 등이 연일 이어졌다고 해요.

'대림창고'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와 같이 폐건물의 원형을 살린 크고 작은 매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생산-제조-소비가 하나로 이어지는 원라인(ONE LINE) 시스템을 구축한 복합문화공간 '성수연방' 역시 오래된 화학 공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탄생했고요. 이와 더불어 때마침 좋은 타이밍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수제화 특화사업, 붉은 벽돌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어요. 현재 성수동은 지역 정체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서울 최고의 상권이 되었죠.

'1유로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유럽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방치된 채 쓰지 않는 오래된 건물을 임대료를 단 1유로만 내면 사용하도록 한 건데요. 송정동의 1유로 프로젝트는 3년 임대료가 1유로라고 해요. 2년여간 방치되었던 빌라를 리모델링해 진행하고 있어요. 순수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스몰 브랜드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지요. 도시재생의 근본적 목표를 좇고 있는 멋진 본보기를 살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상상 한 여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한 지하도상가 소규모 문화공연 〈상상 한 여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알찬 프로그램으로 춘천 시민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멋진 공연과 재밌는 체험, 스탬프 투어, 이벤트 등 즐거운 행사를 만들려고 몇 개월간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이 정도면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추억도 방울방울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는 춘천 지하도상가라고 해도 되겠죠? 방문해주신 모든 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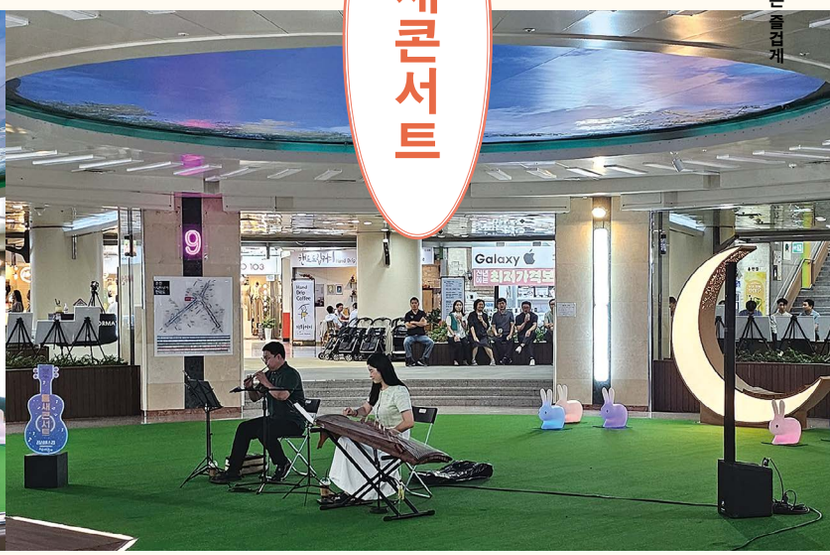








틈새콘서트



〈틈새콘서트〉는 지난 6월 말에 시작해 매주 화·수·목 점심시간 소소한 행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는 31일 이 여정의 마지막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동안 클래식, 국악, 어쿠스틱 밴드, 마임, 마술 등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팀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를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였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조운위크 여름

8월 25일, 26일 한여름 밤의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재즈, 클래식, 칵테일 쇼를 비롯한 다채로운 무대와 와인 시음, 네일아트, 타로 등의 체험활동도 있어요. 상권 연계 마켓과 SNS 이벤트 또한 준비되어 있고요. 춘천의 2040 여러분을 선선한 여름밤 시청광장으로 초대합니다~

문의 033-250-4938

상상 그 이상의 댄스

지난 7월 시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5개월간 진행합니다. 라인댄스, 이지댄스 등 다양한 스텝과 동작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 지하도상가에서 진행하며 12월 첫째 주에는 결과발표회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50-4935**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 8/1~8/15 **제9회 황계 서영림 한국화展**
- 8/16~8/31 **갖 사르다**
- 9/8~9/10 **하나어린이집 작품 전시회**
- 9/16~9/23 **최지영 1회 개인전**

문의 033-250-4935

안녕하세요, 인턴 김고은입니다. 6월 8일부터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5개월간 일하게 된 인턴 김고은입니다. 학부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이 생겨 도시재생 청년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 업무는 센터 내 도시재생 활동들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같은 SNS를 활용하는데 행사 홍보 외에 월례회의 결과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코디님들이 문화행사를 진행할 때 옆에서 보조하며 간단히 행사 준비와 정리를 도와드리거나 사진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운동 도시재생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033-250-1800

조운동네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600여 개의 가게를 품은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 권역.
지하도상가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상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다.

박민정 시민기자



휴가철이니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래서 지하도상가가 잘되면 좋겠어요. 구경할 거리를 다양하게 갖추고, 모든 쇼핑이 가능하게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노엘 단골손님께 감사함을 전해요.

유일의 스카프 패션숍 **노엘** / 중앙로 나-1호, 010-3867-0349



성능은 4배가 뛰어나고 가격은 40~50% 저렴한 알뜰폰을 아세요? 요즘은 MZ세대들이 더 찾는데요, 제로모바일이 제대로 안내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틈틈이 알려드리니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지하도상가의 휴대폰 약방 **제로모바일** 중앙로 나-9·10호, 033-242-4000



지하도상가를 많이 찾아와주세요. 저희에게 좋은 일이란 게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코로나도 풀렸으니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세요. 부지런히 트렌디한 예쁜 가방, 신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성 뿜뿜 가방부터 구두까지 **93WATT** / 중앙로 나-02호



여기는 교통이 편리해요, 주차 2시간 무료예요, 시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모시는 엔젤아이가 있어요. 아기 옷부터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귀엽게 꾸며줄 스타일 좋은 옷들을 알차게 갖추었어요. 예쁜 옷을 찾아보세요.

유아아동복 전문 **엔젤아이**
나-23호, 033-253-1703



18년째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수놓는 걸로 하루를 보내는데, 눈 감고도 실을 꿸 수 있어요. 주문 제작도 하죠. 요즘은 돈 들어온다는 해바라기를 십자수로 많이 하세요.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프린트십자수도 있으니 무료로 배우면서 행복을 수놓아 보세요.

주문 제작부터 십자수 무료 강습까지 **황실유럽자수**
중앙로 나-29·30호, 033-251-9767



2022년 8월에 작업실 겸 숍을 열었어요. 가정과는 분리된 나만의 작업실에서 수놓는 게 즐겁고,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보태주시니 좋아요. 프랑스자수의 정감 어린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리개, 덮개, 인형, 러너, 헤어핀 등에 담아요.

린넨, 면에 프랑스자수 **바늘꽃, 수를 놓다** / 중앙로 가-12호, 010-7654-0909



동물 모양의 캐릭터 손인형, '봄봄'과 '동백꽃'의 점순이를 천인형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형을 디자인하는 여기 작업실에서 보내는 하루가 즐거워요. 규방공예자격을 갖고 있어 전통적인 바느질을 만날 수 있어요. 귀여운 소품도 있어요~

희망을 품은 천인형가게 **에스쁘아르**
도청로 다-70호, 010-9380-8232



단일브랜드 화장품숍으로 젊은 세대부터 중년 세대까지 잘 맞아요. 비건 화장품이 많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기초부터 색조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요. 세일하고, 샘플 받고, 비교적 저렴한 지하도상가 SKINFOOD에서 피부 열기를 진정시켜 보세요.

춘천에서 유일한 단일브랜드 화장품숍 **SKINFOOD**
남부로 라-49호, 033-253-6619



캐주얼 룩, 정장 슈트, 신발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까지 남성 성인복 관련 상품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20~30대 남성분들이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게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니 멋스럽게 연출해 보십시오.

캐주얼 룩부터 정장까지 성인 남성복
이라면 **라붐 그리고 S-TWO**
남부로 라-08호, 39·40호



가정에서 엄마들이 하듯이 깨끗하고 맛있게 만들어요. 손님들이 우리 마음을 아는지 맛있다고 해줘 기분 좋아요. 음식은 물론 그릇, 물병, 컵 다 삶고 아주 깨끗하게 해요. 시니어클럽에서 키운 쥐눈이콩나물로 만들죠. 담백하고 맛있는 콩나물밥, 콩나물라면정식, 하안순두부가 5,000원이에요.

집밥 이상으로 깨끗하고 맛있는 **쥐눈이콩나물밥**
도청로 다-82·83호, 033-242-9777

당일 올라오는 바지락을 두 번 해감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면은 숙성한 답니다. 뜨뜻하지만 몸속이 시원해지는 바지락칼국수, 쫄깃한 식감이 좋은 들깨수제비가 일품이에요. 여름 메뉴로 들깨냉콩국수, 서리태콩국수를 시작했어요.

예약이 필수인 **윤가네 바지락칼국수**
도청로 다-53·54호, 033-242-0841

저희를 시작으로 사진관이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의 사진거리가 형성됐어요. 여기서는 빨리, 어디서나 촬영할 수 있어요. 20년째 이 자리에 있어서 손님들과 친밀도가 높은데, 편안한 표정의 사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화사하고 선명하게 출력해 드리죠.

지하도상가 사진거리의 1번지 **스타키드**
도청로 다-67호, 033-242-2322

중앙시장에 있다가 이리로 내려왔어요. 지하도상가에 이런 원단가게도 있답니다. 10년을 훌쩍 넘겨 앞치마 같은 홈패션도 하고 이불 맞춤, 이불 수선도 하고 있어요.

홈패션 원단이 가지가지 많은 **찬이네공방**
중앙로 가-20·21호, 010-9241-5975



손톱이 얇아서 걱정? 각질 관리가 안돼서 고민? 그렇다면 손 빠르고 맞춤 관리 잘하는 비키네일입니다. 색상 욕심도 많아 젤네일이 다양하고 파츠 같은 액세서리도 많아요. 직업에 따라서 케어하는 시간을 달리하는데요, 손톱·발톱을 깨끗하고 예쁘게 관리하고 싶다면 찾아주세요. 예약 우선으로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해요.

차별 있게 관리하고 개성 있게 연출하는
비키네일 / 마-48, 010-6749-2899



가성비 좋고 품질 높은 토털 패션 아우라예요. 저희는 개성 있는 아이템으로 무엇 하나 겹치지 않아요. 아우라의 옷은 나이 상관없이 입는 데일리 룩으로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하게 해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움은 물론이고요. 아우라의 8월은 빅세일 기간!

친절이 강점인 청바지 맛집 **aura**
남부로 마-36, 010-2848-0523

안경점 안에 렌즈 전문숍을 둔, 안경사가 있는 정통 안경점이에요. 안경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손님들한테는 친밀하게 하고 시력은 정확하게 측정해 최적의 안경을 찾아드려요. 선글라스부터 렌즈까지 30년 차 안경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지하도상가 착한 사업체 **안경마트 & 렌즈타운춘천점**
광장 다-19·20호, 033-244-0992

